

01 교회소식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

세계 곳곳에서 유튜브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기도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불의를 행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03 기획특집

해외에서도 은사집회에 참석해...

인도,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에서 매달 마지막  
금요일아예배 2부시 열리는 은사집회에 참석해 응답받은 소식.

04 간증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손수건과 환자기도로 굳어진 허리가  
곧게 펴진 김정춘 집사와 자궁근종이 사라진 몽골 할리은 자매 간증.

# 만민뉴스

제881호 2019년 3월 2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유튜브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파되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오늘날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계 선교를 더욱 활발히 이룰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TV방송과 60여 개 언어로 발간된 신앙서적, 그리고 30여 개 언어로 제작된 만민뉴스와 7개 외국어로 제공되는 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복음 전파에 힘써 왔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선교가 더해져 전 세계 네티즌들이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유튜브’를 활용한 복음 전파가 활기를 띠고 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가정교회, 지성전 늘어나**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영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인도의 유튜브 시청자는 약 3억 명에 달한다. 인터넷 보급률이 급성장하는 만큼 시청자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 델리만민교회 담임 김상휘 목사는 “국민 대다수가 힌두교도인 인도는 요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합니다. 이러한 때에 유튜브를 통한 선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힌디어로 더빙하고 힌디어 자막으로 편집하여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월 수백 통의 기도 요청과 간증,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으며,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많은 응답과 치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 시청자들의 모임에도 초대되어 설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흐름은 대부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대륙 선교에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다. 콜롬비아만민교회(담임 장정연 목사)에서 유튜브에 올린 한국 만민중앙교회의 주일 대예배와 금요일아예배 생방송에 미국, 멕시코,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때로는 스페인, 중동, 이탈리아 등까지 30~40여 곳에서 접속하여 함께하고 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지성전이 생겨나기 시작해 현재 온두라스와 멕시코에 각각 1개, 베네수엘라에 3개, 콜롬비아에 4개의 지성전이 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

이처럼 유튜브가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영적으로 유용하고 획기적인 콘텐츠를 담고 있어야 한다. 최근 우리 교회 유튜브 선교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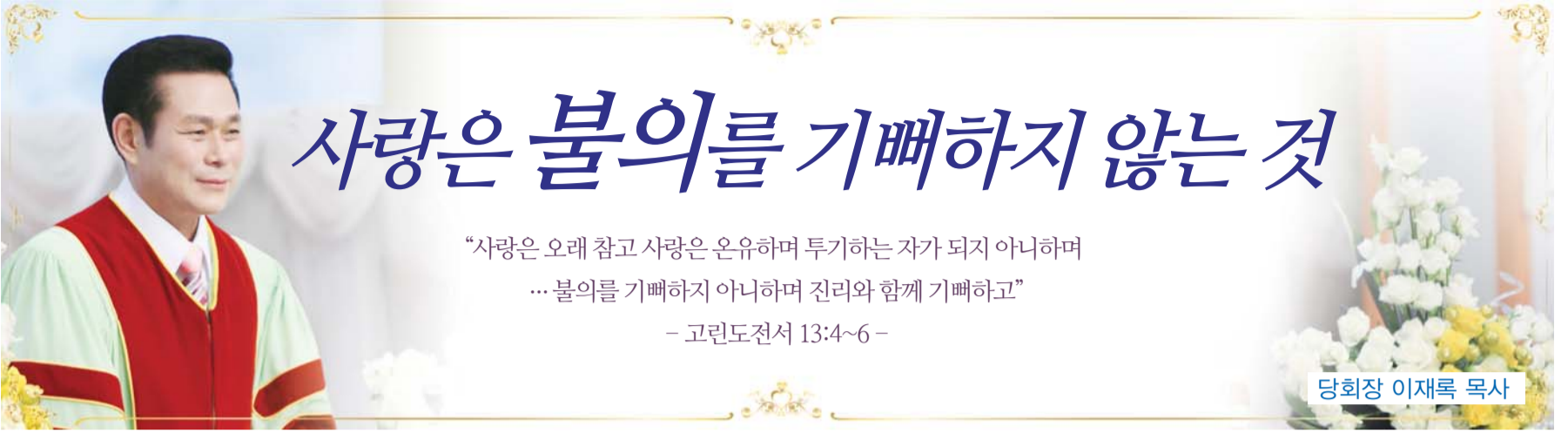
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이 받은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의 섭리를 명확히 전달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깊이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영적 충만함을 얻게 해 주고 있다.

더욱이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을 갖기 어려운 마지막 때에 이재록 목사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

로 참 믿음과 변화의 능력을 받고 있다. 한편, 유튜브를 통해 매달 마지막 금요일아예배 2부 ‘은사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고 현지에서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 살아 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다(관련 기사 3면).

인도의 힌디어 유튜브 방송(GCNTV HINDI) 시청자 켈라쉬 형제(26세)는 “왼쪽 청력을 잃은 뒤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자신감을 많이 잃고 오른쪽 청력까지 잃을까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검색하다 이재록 목사님을 알게 되어 최근에는 은사집회를 통해 청력이 되살아나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 고린도전서 13:4~6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선진국일수록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반면, 후진국일수록 부정부패와 불의가 만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의는 국가 전체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나라를 죽임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개개인의 삶에도 불의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속성 중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에 악은 모양도 품지 않는 것이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는 불미스런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며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잘사는 친구를 보면 시기, 질투가 납니다. 괜히 뽐내는 것 같고 미운 마음이 듭니다. '친구는 잘사는데 나는 이게 뭐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스칩니다. 이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잘사는 친구가 사기를 당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순간 "잘산다고 뽐내더니 고소하다" 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는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악한 일에 동조하고 가담했다면 적극적으로 불의를 기뻐한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보아도 잘못이라고 느끼는 일반적인 불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하게 땀 흘려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거나 힘으로 위협하는 등 옳지 않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법과 정당한 절차를 거기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쌓아나가는 경우입니다. 누구보다 정직해야 할 판사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려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누가 보아도 불의입니다.

또한 장사할 때 양을 속여 팔거나 값싸고 질 나쁜 원료를 써서 부당한 이익을 챙깁니다.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눈앞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버젓이 속이지요. 이처럼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고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높은 공직에 있는데 하루는 절친한 친구가 부당한 방법으로 큰돈을 버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발되면 크게 처벌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지 않은 돈을 건네며 얼마 동안만 눈감아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번 일만 잘되면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침 집안에 큰일이 생겨서 당장 목돈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잔고가 많습니다. 알고 보니 담당 기관의 착오로 세금이 빠져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잘됐다. 어차피 그들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니까' 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역대하 19장 7절에 "그러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불의가 전혀 없으십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살던 조카가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조카뿐 아니라 소돔 성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까지 되찾아 주었습니다. 소돔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인입니까? 왕은 고마운 마음에 되찾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사코 거절합니다(창 14:22~23).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는 땅 주인이 매장지를 거저 주겠다는데도 받지 않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요. 후대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그가 정직하여 불로소득이나 불의의 재물을 얻으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을 거기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수고의 대가 외에는 바라지 않지요.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 2.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의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의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가 다 불의입니다.

마음의 악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온 죄이며, 죄 중에서도 특히 육체의 일에 해당합니다. 즉 마음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악이 다름, 폭행, 사기, 살인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은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고전 6:9~10).

불의를 사랑하여 결국 멸망으로 간 사람 중에는 아간이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 2세대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의 흐름이 멎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물건에는 일절 손대지 말라고 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기 때문임을 아간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 나온 물건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겨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 끝에 흠먼지와 단조로움에 익숙했던 그에게 여리고 성의 물품들은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좋아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외투와 번쩍이는 금덩이와 은을 보자 아간은 하나님 말씀도 여호수아의 당부도 잊은 채 은밀히 감추어 두었지요.

이러한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결국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아간의 불의가 드러났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돌무더기가 쌓인 곳이 저주의 상징인 아골 골짜기입니다.

또한 발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모압 왕 발라미가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나눔께서는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민 22:12) 말씀하시지요.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모압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왕이 금은보화를 잔뜩 보내며 다시 요청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재물에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 백성을 함정에 빠뜨릴 방법을 왕에게 가르쳐 주고 말았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함으로 큰 재앙을 당하였고, 발람은 후일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불의의 샅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불의를 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애통하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도 적당히,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며 불의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불의한 일에 동조하고 가담한다면 결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벧전 3:18).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으니 단순히 불의를 행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만사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세계 곳곳에서 은사집회를 통해 만나는 권능의 역사!

매월 마지막 금요일아침 2부 시간에 열리는 은사집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교역자 회장 이수진 목사가 기도해 줄 때 국내는 물론 인터넷과 GCN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참여한 이들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해외에서 전해 온 간증 일부를 소개한다.



### “귀신들렸던 여동생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산딕 형제**  
(18세, 인도 고락프르)

1년 전부터 제 여동생(아니타)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가족에게 욕하며 소리를 지르고 화도 많이 냈지요. 이런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힌두교 술사들을 불러 굿을 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술사들은 곧 나를 거라고 했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 동생은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하며 가족을 괴롭혔지요. 급기야 자살까지 하려 하니 손발을 줄로 묶어 놓아야 했습니다. 2018년 1월, 삼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GCNTV

HINDI’에 대해 소개받으며, 텔리만민교회 담임 김상휘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난동을 부릴 때마다 전화로 김상휘 목사님에게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으면 진정되곤 했지요.

이후 저희 가족은 ‘GCNTV HINDI’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와 ‘십계명’ 설교를 들으며 그동안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각종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이웃들과 함께 유튜브로 만민중앙교회 금요일아침 은사집회를 생방송으로 참석하던 중, 그 자리에서 많은 이웃이 치료받는 것을 보며 제 동생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월 은사집회 때 동생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께 설교 말씀을 들으며 마음 다해 기도로 준비했지요. 그리하여 지난 2월 22일(현지 시각), 은사집회 시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하시는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때 여동생은 통화자복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디.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예전처럼 온전한 모습이 되었지요. 할렐루야!

### “이명 증세가 사라져 소리가 잘 들립니다”



**젠시 가르시아 성도**  
(30세, 엘살바도르 손소나떼)

2018년 12월 말,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면서 귀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 뒤 왼쪽 귀의 청력이 떨어지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까지 크게 들렸지요. 제 마음의 서운함과 미움을 발견해 버리고자 기도하며 회개했더니 1월 은사집회 시 왼쪽 귀의 통증과 이명 증세가 사라지고 소리가 잘 들게 되었습니다.

### “시력이 좋아져 칠판 글씨도 선명하게 보여요”



**까탈리나 꼬레도르 자매**  
(21세, 콜롬비아 보고타)

2018년부터 근시 때문에 강의를 들을 때면 교수님은 물론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멀리서 인사하는 친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1월 마지막 금요일아침 시 설교를 들으며 저의 교만함을 회개하게 되었고, 2부 은사집회 시 기도받은 후에는 칠판 글씨는 물론, 평소 흐릿하게 보이던 사람의 얼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 “마비된 왼쪽 눈꺼풀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탕분령 성도**  
(37세, 말레이시아 페낭)

5-6개월 전부터 왼쪽 눈꺼풀에 마비 증세가 와서 한쪽 눈이 감긴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에 이상이 생겨 일어난 증세라고 하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지난 1월 은사집회에 참여하여 기도를 받은 다음 날부터 놀랍게도 마비된 눈이 떠져 정상이 되었습니다.

### “청력이 살아나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요”



**키티퐁 성도**  
(35세, 태국 방콕)

저는 선천성 농아이며 네프시스(다중화상 사이트)를 통해 만민중앙교회 금요일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은사집회에 참석해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놀랍게도 왼쪽 귀의 청력이 살아났습니다. 자동차의 경적 소리도 듣게 됐지요.

뿐만 아니라 1년간 고통 받던 왼쪽 발의 통증까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 “7년 동안 막혔던 눈물샘이 뚫렸습니다”



**사이토 지혜 집사**  
(61세, 일본 야마가타)

7년 전부터 오른쪽 눈에 이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는데, 눈물샘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눈물은 나오지만 비정상적으로 흐르며 완치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은사집회 시 권능의 기도를 받을 때 눈이 시원해지더니 눈물이 가끔씩 나왔고, 2월 은사집회 시 기도받은 후에는 온전히 치료되었습니다.

# “굽어진 허리가 이렇게 쭉욱 펴졌습니다”

김정춘 집사 (71세, 중국 1교구)



저는 중국에서 목수 일을 하던 중, 2층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 뒤 허리가 점점 굽었고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지요. 항상 허리 보호대를 착용해야 했고, 정상인들을 볼 때마다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2003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한국에 왔는데 전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의 허리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말에 만민중앙교회에 가보니 성도들이 너무나 뜨겁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아내와 함께 등록하였지요. 그런데 제 허리는 나아지지 않았고, 니중에는 일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중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014년, 중국에서 GCN방송(www.gcntv.org)과 만민뉴스

를 통해 교회 소식과 간증들을 계속 접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치료받는데 왜 나는 치료를 못 받고 중국으로 돌아왔을까? 그게야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었지요. 이제는 참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고 치료받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10월, 외손녀가 한국에 공부하러 간다가 저희 부부도 함께 오게 되었지요. 저는 허리를 치료받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며 만민기도원 환자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전과는 달리 아주 새롭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난날에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것이 도대체 뭐였는가’ 싶어 통회자복이 나왔습니

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날이 많았고 어떤 때는 성령의 불이 뒤에서부터 허리까지 와서 몸이 후끈후끈했지요.

특히 2019년 1월 21일 집회 때에는 이복남 원장님에게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은 뒤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뒤로 젖혀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허리가 완전히 펴졌네요!” 하며 기뻐하였지요.

더욱이 1월 25일 금요일아침에 2부 은사집회 시 강사 이수진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을 때는 ‘허리가 온전히 나왔구나!’ 하는 믿음과 확신이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기 위해 단으로 올라갔는데 그 순간 놀랍게도 전과 달리 10m 밖의 사물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눈까지 밝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저는 너무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나며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는 등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 “자궁근종이라 놀랐지만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할리온 자매 (15세, 몽골 울란바토르만민교회)

2014년 3월 말 저는 할머니, 여동생과 함께 노방전도를 받아 울란바토르만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다시체르마 성도)는 몸이 많이 아프셨고 오른쪽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다니셨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몸이 건강해지셔서 목발 없이 잘 걸으시고 무릎도 꿇을 수 있게 되셨지요. 뿐만 아니라 현재 장년 선교회 회장으로 교회에서 즐겨 봉사하며 충성하고 계십니다.

저는 글로리워십팀 단원으로 충성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11일, 배가 점점 아프기 시작하니 배의 왼쪽을 비트는 듯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겼는데, 일주일 뒤 다시 아프고 통증이 전보다 더욱 심해져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저는 할머니의 연락을 받은 양호바야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 사진 촬영 결과, 왼쪽 자궁

근종이었지요. 의사는 뛰면 안 되고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고 했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근종이 더 커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 후 있을 교회 창립 행사 때 저로 인해 공연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집이 교회에서 멀다는 핑계로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한 것 등이 떠올라 신속히 회개한 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창립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연습하며 바쁘게 지냈지요.



드디어 9월 23일 창립 기념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았는데 통증이 점점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통증이 전혀 없어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조금씩 아플 때마다 계속 기도를 받았지요. 통증이 전혀 없어서 10월 3일,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궁근종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궁근종을 깨끗이 치료받고 일주일 뒤, 저는 학교 스포츠 시험에서 은메달을 받았고 그 다음 주에 치른 농구 선발전에서는 저희 팀이 금메달을 받아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도 교회에 나오실 뿐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께 응답받아 제 몸과 마음이 가벼워니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초음파 사진**



▲ 기도받기 전 : 자궁에 6x5cm의 혹이 보임

**진료 기록지**



▲ 기도받은 후 : 혹이 사라지고 정상임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동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3478-9668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왕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덕신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산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